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데이터분과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관련 모 두 말 씀

2021. 7. 8.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회

「디지털금융 협의회 데이터분과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이후 금융권의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분과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금융권 AI 활성화의 토양이 되는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논의에 앞서

먼저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힘써주신

서울대 고학수 교수님을 비롯한

금융업권 및 각계 전문가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주요 논의 내용

AI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

우리 금융산업은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혁신과 도전을 거듭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화되고 있고,
핀테크 산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 FT('21.6.24.) South Korea's Answer to Robinhood and Venmo
Lands a \$7 billion valuation

그동안 금융규제 혁신과
새로운 혁신적 Player들에 의한
양적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AI와 같은 기술 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를 통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금융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금융 중개기능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대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AI 기술을 활용한 결과,
서류판독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고,

영국의 monzo사는 AI 사기방지 모형 적용 후
직불카드 사기율이
0.84%에서 0.01%까지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가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보험 음성봇,
계좌발급이나 계좌이체를 도와주는 AI은행원이 등장하였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금액은 이미 1조원이 넘었습니다.

AI기술의 비약적 발전속도,
가명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법제의 개정 등을 고려할 때,
AI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금융의 미래라 할 것입니다.

다만,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올 초 AI 챗봇 ‘이루다’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AI로 인한 차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AI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AI 챗봇 ‘이루다’가 여성·장애인·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생산함에 따라 AI 윤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발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AI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지켜야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AI 기술발전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규제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면서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하여
AI를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핵심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금융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AI 기술이 가지는 ‘블랙박스적 특성*’ 등
기술적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AI 기술 고도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AI의 내부 처리과정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기술적 한계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AI 금융서비스를 개발·운영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금융서비스 목적에 맞게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② 둘째, AI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야 말로
AI 기술자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AI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여
편향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③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신뢰기반 산업입니다.

금융서비스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관리된다는 금융소비자의 믿음 없이는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AI가 내린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의 결과가
우리사회의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과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AI 기술 활용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처럼
금융소비자가 AI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 정정요구권 등 자신의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Ⅲ. 마무리 말씀

정부의 AI 활성화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AI 기술력이 1등인 국가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AI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AI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있지만,

AI 기술혁신의 과실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없이 불가능합니다.

AI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 뿐 아니라
금융권이 AI 기술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등
AI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규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원활한 AI 금융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가
금융권의 소비자 중심 AI 혁신을 앞당기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